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성찬예배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과의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유아 유치부 예배 신설 및 교사모집
예배시작 4.14(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대상 36개월~7세
(36개월 미만은 부모동반 예배시 참여 가능합니다)
교사모집 분반, 보조교사
문의 염민아 전도사 010. 2796. 7262

4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합니다.
수요예배와 전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5 4월 교회를 위한 기도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안내

- * 교회에서는 교우들 사이의 금전거래 및 상품판매 행위를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반드시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목회자에게 알려 주셔서 시험을 예방합니다.
- *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 *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택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다음세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속회예배	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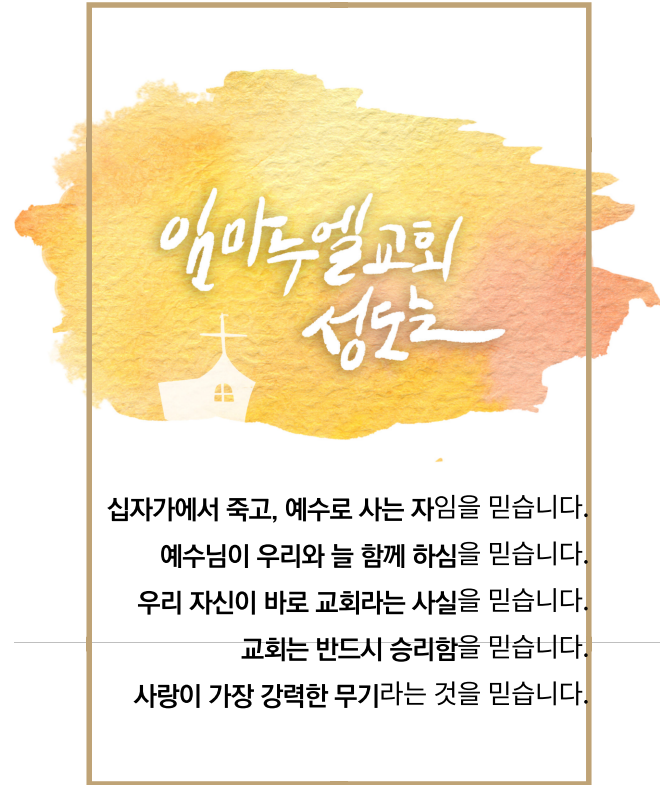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벤엘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김문숙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성경	사도행전 6:1-7(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원망과 불평은 죽음으로 풀어야 한다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마음이 상한 자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4/14 1부 김선미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4/21 1부 김성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주중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전도]

수요전도대 오후 1:00

열왕기상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우릴 사용하소서
말씀_사도행전 6:1-7



초대교회는 시련과 고난 속에도 부흥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교회에 해야 할 일도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 시험거리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구제'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 구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구제 사역이나 교회의 살림을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다 보니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일에만 몰두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이에 교회의 재정과 살림, 구제 사역을 더 탁월하게 이끌어 갈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선포 합니다.

가정예배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그 일에 기뻐하며 7명의 평신도지도자(집사)를 세웁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3절)였습니다.

성도들은 마음모아 7명의 집사(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를 세웠는데, 뽑고 보니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 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일 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7명의 집사를 추천했고, 사도들도 그 일에 기도하며 안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더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보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마누엘교회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없나요?
- 2)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나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